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8. 3.(목) 14:01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1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각 위원님들의 소감을 간략히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표철수 위원님과 허 욱 위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김석진 위원님, 고삼석 위원님 순으로 각각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위원님!

○ 표철수 상임위원

- 새로 방송통신위원으로 일하게 된 표철수입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으로서 위원회에 부여된 직무를 가장 합목적으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통신 분야의 공공성·자율성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측면을 특히 유념해서 보고, 또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허 옥 위원님!

○ 허 옥 상임위원

- 영광입니다. 중차대한 시기에 큰 역할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한 4기 상임위원 중 1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 김석진 상임위원

- 새로 오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 2, 3기와 달리 이번 4기 방통위원회는 다른 환경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여야 정치권 양당제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이 됐다면 이제는 여야 정치권의 다당제 체제 하에 추천을 받아서 꾸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당제 체제하에 진영논리로 서로 대결하고 또 경직되게 대립하고, 그래서 생산적인 면보다는 진영논리를 고집하는 이런 운영이 돼서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합의제기구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표결까지 가는 그런 험악한 장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원내교섭단체 기준으로 본다면 4당에서 다 추천을 받아서 온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지대, 완충지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논리보다는 정말 방송의 시청자, 또 통신의 이용자를 위해서 어떤 권익을 우리가 챙기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인가 하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장 또 합리적인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특히 시중에서는 통신 ICT 전문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 보다는 우리가 외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정책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 스스로 먼저 가져보고 저는 연임이 됐습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면서 아주 원만하게 잘 꾸려나가도록 저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 고삼석 상임위원

- 반갑습니다. 지난 3월 말에 3기 방통위 마지막 회의를 하고 4개월 넘어서 이렇게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표철수 위원님, 그리고 허 옥 위원님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3기에 이어서 또 4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특히 김석진 위원님께서 항상 원만하게 운영해 오셨는데 김석진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러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저도 지난 3년 동안 3기 방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방송계·통신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기 방통위의 역할 설정은 제3기 방통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냉정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특별히 공영방송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지난 3기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력에 의해서 공영방송이 침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인 한계를 근거로 해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치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되고 원치 않는 보직으로 밀려나는 그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하락했고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2006년에 31위에서 2016년 70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통신시장 질서의 확립, 가계통신비 인하, 개인정보보호 강화, 포털 등 인터넷 규제체계 정비,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등 현안은 산적해 있습니다.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전문가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수 없이 많은 통신관련 현안들을 다루어 왔고 또 인터넷 관련된 정책도 다뤄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석진 위원님께서도 1년 반 동안 방송과 통신 구분 없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그렇게 안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저는 단연코 공영방송 정상화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는 이 목적을 앞으로 제 임기 동안 방통위원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그런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방송과 통신의 전문성을 살리되 합의제기구로서의 정신을 충실히 발휘하고 또 최근의 거버넌스의 특징인 협치에 의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주된 내용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기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우리 4기 위원회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욱 더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그러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사진들 많이 찍으셨지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회의 순서에 따라 제17차부터 제20차까지의 서면회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

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록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지난 제17차부터 제20차까지의 서면회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의결안건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의결안건 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비공개 안건인 <의결안건 가>에 앞서 <의결안건 나>를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7-21-123)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 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부, 이하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지역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 및 재허가 조건을 일부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입니다. 먼저 허가 및 재허가 조건 수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 허가와 관련해서 당초 미래부(안)의 조건 중에서 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은 경영안정성, 투자계획

이행 확보를 위해 세종시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증자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안)에 대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45억원 증자'라는 문구를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2>번 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은 영업실적 부진 등에 대비한 단계적 추가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서경방송의 재허가와 관련하여 <2>번, <3>번 당초 (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2>번 방통위 수정(안)은 (주)서경방송은 2019년 만기인 타니골프앤리조트(주) 회사채 투자금 회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서경방송 향후 타니골프앤리조트(주)에 대한 추가적인 자금지원, 지급보증, 담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개 허가 SO, 24개 재허가 SO에 대한 공통적으로 부가된 舊 미래부(안)에 대해서 방통위 수정(안)입니다. 방송사업의 안정적 제공과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은 허가 및 재허가 권고사항으로 방통위원회에서 부가하는 (안)입니다. 허가·재허가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티브로드에 대한 허가·재허가 권고사항으로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기여 계획이 미흡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씨제이헬로비전의 재허가에 대해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씨엠비 광주방송 전남지점에 대해 방송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방송사업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추가 가입자 확보 계획 및 ARPU(가입자당 수신료 수익)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음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9조 제2항, 제17조 제1항에 따라 (주)티브로드 세종방송 등 2개 SO 허가 및 (주)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의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사업자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경과사항입니다. '17년 1월 31일 舊 미래부에서 SO 재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5월 1일 세종시에 대한 허가 계획 발표 및 허가신청 공고를 하였습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허가 신청서류 접수 및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허가 및 재허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6월 22일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 요청을 방통위에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방송, 법률, 회계분야 등 외부전문가 3인으로 심사위를 구성해서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 약식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약식 심사위원회는 (주)티브로드 세종방송 등 2개사에 대해 허가하고 (주)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사를 재허가하는 것이 적절하나, 허가 및 재허가 조건 일부의 추가 및 변경, 권고사항 부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은 박스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의결주문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 약식 심사위원회의 의견제시 내용, 舊 미래부가 제시한 허가 및 재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주)티브로드 세종방송 등 2개 SO 허가 및 (주)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의 재허가

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 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과기정통부에 허가 및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 김석진 상임위원

- 확인하겠습니다. 7월 31일까지 사전동의를 우리가 미래부에 주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못해 줘서 현재 방송이 끊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 송출 명령이 나가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오늘까지 며칠째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8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3일째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에 따르는 피해가 혹시 발생했는지를 제가 여쭙 보는 것인데 우선 시청자 피해는 없지요? 일단 방송은 그대로 나가고 있으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다음에 재허가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서 SO가 혹시 받는 피해가 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특별하게 받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기본적으로 재허가가 나가게 되면 8월 1일자 부터 소급해서 내는 것으로 미래부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방송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손해를 보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재허가·허가가 사전동의를 늦어지는 바람에 귀책사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나중에 송사가 걸릴 때 SO 쪽에서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런 방송 송출 유지명령이 언제쯤 해소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로 사전동의를 내일이라도 띄워 주면 바로...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회의가 끝나면 의결이 되면 바로 보내 줄 예정이고, 과기정통부에서 오늘 중으로 재허가를 낼 예정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바로 보내주고 오늘 중으로 바로 재허가가 떨어집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신속하게 비상상태가 해소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방통위 수정(안)에 보면 이런 허가·재허가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는 주문이 들어갑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여기에서 SO 협력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SO 설치 업무라든가 A/S 업무를 담당하는 설치기사들 이런 분들이 주로 협력업체 종사자이고, 티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설치와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외주제작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SO이기 때문에 외주제작사 문제와는 특별히 관련성은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허가조건에 또는 권고사항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기여계획이 미흡하다, 그래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나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보도를 보면 특히 MSO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인력이 많습니다. 경영이 어려우면 비정규직을 많이 해고시켰습니다. 그래서 모 MSO 같은 경우에는 복직을 시켜 달라고 농성도 벌이고, 아직도 완전 해결은 안 된 것으로 보이지만 가뜩이나 국정 목표와 방향이 비정규직의 해소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런 비정규직 또는 SO에 일하는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직종 이런 분들이 혹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서 그런 내용을 겪고 있는 곳은, 이번에 재허가해 줄 때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서 피해가 빨리 해소가 되게끔, 원만하게 그런 사태가 해결되게끔 그렇게 조건에 넣는 것이 너무 과하다면 권고사항 정도는, 지역사회 공헌도만 나와 있는데 내부 문제, 비정규직의 부당해고 해소 문제, 고용 문제 같은 것도 있다면 그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해당이 될 수 있습니까? 실무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협력업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MSO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허가나 재허가 공통조건으로 협력업체 상생방안, 그리고 종사자 고용 안정이라든가 복지 향상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특정사의 경우에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에 관해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는 해소가 된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심사에서는 특별하게 많은 부분을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왜냐하면 우리가 감독을 할 때 가장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재허가 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동안에 물의를 빚었다든가 심한 내부 홍역을 치른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여다봐서 원만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당초 미래부에서도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재허가 공통조건으로 협력업체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고, 방통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서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협력업체 상생방안 괄호를 열고 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이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라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보름 전에 사고가 있었지요. EBS 다큐 제작하는 팀 외주사 독립PD 2명이 촬영스케줄 도중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제작 환경, 또 비정규직 이런 방송사의 갑질 또 빠듯한 제작비에 맞추려고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과중이 겹치고, 또 승용차도 제대로 렌트를 하지 못하고 이래서 총체적으로 빚어진 사고다 이런 지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업체나 외주업체 소위 갑질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보호를 신경 써서 들여다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들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 4기는 특히 사업자들 간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앞으로 저희 허가 과정에서라든지 기타 감독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음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취지에서 이번 인허가 과정에서도 뭔가 그런 측면에서 보강할 것이 없는가, 고려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고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허 욱 상임위원**

- 주문한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舊 미래부(안)에 대해서 방통위 수정(안)이 관련된 사안들을 보다 꼼꼼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을 보면 방통위의 수정안에 영업실적 부진 등에 대비한 단계적 추가 자금조달 방안 수립, 서경방송의 경우 회사채 투자금 회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처럼 감독의 내용은 결국은 과기정통부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되어 제출된 내용들을 다 받아서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방통위의 수정안들이 진전되는지를 팔로우업(follow up)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조건이라면 이 의결주문에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미래부에 이행실적 점검에 대한 실적을 요구해서 받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기정통부에서 가져온 (안)에 방송통신위원회 수정

(안)을 적시하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는 수정안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래 전에 방송위원회에 근무를 하다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번거롭다, 결국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조정이 충분하지 않고 나누어져 있어서 생기는 번거롭고 중첩된 절차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것은 조정이 반드시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권고사항 가운데, 특히 공익과 장애인 복지채널 아날로그 저가상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전부 다 부가조건들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인데 결국은 이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채널은 그야말로 공익적인 내용을 방송하기 때문에 채널로 지정을 해서 머스트캐리(Must carry)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공익채널 같은 경우에 저희가 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3개씩 9개를 선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채널은 한 군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채널들이 대부분 다 SO에서 캐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주로 고가상품 묶음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가상품 묶음에서 그런 채널들이 들어가 주어야 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채널에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계속 권고해 왔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접근성의 문제인데 심지어는 듀얼 편성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최근에는 듀얼 편성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허 육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제가 예전에 사전동의안이 올라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SO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부가하거나 권고사항을 내놓고 나서 그것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점검하고 또 실적을 보고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쪽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서 우리가 부가했던 재허가 조건이라든가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우리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허가 및 재허가 권고사항에서 보면 티브로드 4개사, 씨제이헬로비전 12개사가 공통적으로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이 부분이 미흡하거나 극히 저조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SO라는 것이 지역 밀착형 매체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공익사업 확대, 지역사회에 대한 공익사업이겠지요. 이런 것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허가 심사 기본 항목에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 권고사항을 부가한 건에 대해서도 다음번 재허가할 때는 실제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점검주기가 깁니다. 이번 재허가 기간이 몇 년이지요? 기본 5년 줄 것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5년, 3년입니다. 신규사업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러면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5년 뒤에 재허가받을 때 '점수 좀 깎이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기반한 SO 사업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저조하거나 특히 미흡한 것입니다. 사전에 보고받았을 때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 내용을 바꾸자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심사 항목에 들어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은 권고사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허가 조건으로 올려야 합니다. 다음에 심사할 때는 과장님, 꼭 참고해 주십시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SO의 공적책임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밀도 깊게 살펴봤는데 결국은 이것이 SO의 돈 문제, 비용의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송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재허가 조건

으로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었고, 일단 권고사항으로 붙이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지요. 방송과 관련된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방송사업자의 책무로 보면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하는 것, 불가능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해 주실 것 같은데...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들이 사전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부에서 자료를 받고 확인은 했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보다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미래부에 요청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권고사항을 조건으로 상향해서 올리면 올해 우리가 36개 SO는 이미 허가가 나갔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35개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번에 24개에 아주 엄격하게, 지난번보다 훨씬 엄격하게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게 되고...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부분들이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흡한 부분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올해 안에 SO 몇 개 정도 재허가가 돌아오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올해는 지금 24개가 마지막이고 내년엔 또 더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내년에 존경하는 표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분장이 다시 이루어져서 이런 SO, 어차피 방송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기정통부와 업무분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조정되어야 우리가 제대로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 하나하나한 이야기, 제대로 점검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런 식으로 허가가 요식행위 비슷하게 나간다면 과연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겠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회의가 길어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고삼석 위원님이나 김석진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이것으로 SO 재허가가 마무리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내년에 SO 재허가를 할 때는 보다 여러 가지 제대로 하지 않은 쪽에서는 강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부가조건을 부여하겠다는 것을 미리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예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심사에 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김석진 위원님, 그리고 표철수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 중 하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SO에 대한 재허가를 제대로 하고자 하더라도 이것이 담당 기구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의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없는 구조로 그것이 매우 보수적인 것이 아닌가, 부조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조리한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의견이 조금 더 잘 관철될 수 있는 방식을 우리 실무진께서 잘 찾아서 사전에 저희가 부가 의견을 더 강력하게 했다는 것을 미리 공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서 저희들의 의견이나 방침이 단순히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것에 그냥 들러리 서는 것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안 되도록, 제대로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 심의에 앞서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차기 회의는 8월 8일(화) 오후 3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8월 10일 목요일에 대면회의가, 8월 11일 금요일에 서면회의가 각각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휴가철이지만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이 있어 연이어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 43분 】

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 (2017-21-122) (비공개)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새로 선임되신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 허 옥 부위원장

-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갖춘 세 분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도 관례상 제가 전반기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송구스럽고 또한 영광입니다. 시대적 과제인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의 강화 그리고 ICT를 포함한 미래지향적인 방송통신 산업발전을 위해서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4시 49분 폐회 】